

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4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 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66천 km ²	G D P	805억 달러 (2014년)
인구	21.45백만 명 (2014년)	1 인 당 G D P	3,577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Sri Lanka Rupee (SLR)
대외정책	독자적 실리노선	환율(달러당)	130.57 (2014년)

-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2 수준이며,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2,200만 명으로, 싱할리족(75%)과 타밀족(11%)으로 구성되어 있음. 인접국인 인도와는 타밀 반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시리세나 정권 집권 후 우호관계를 회복함.
-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'실론'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함.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여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등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스리랑카는 청정해안, 열대성 기후 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, 섬유산업이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.
-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: SAARC)의 회원국으로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분	2011	2012	2013	2014 ^e	2015 ^f
경제성장률	8.2	6.3	7.3	7.4	6.5
재정수지/GDP	-6.8	-6.4	-5.8	-5.9	-6.6
소비자물가상승률	6.7	7.5	6.9	3.3	1.7

자료: IMF.

□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확대로 6.5%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

-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후 인프라 투자 확대, 관광업 호조로 2010년 이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. 2012년에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, 루피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6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13년에는 2012년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및 민간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관광업의 성장으로 7.3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14년에는 민간소비회복 및 인프라투자확대 등으로 7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15년에는 1인당 소득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확대, 동북부 지역 고정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,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6.5%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.

□ 세수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

- 스리랑카는 낮은 소득 수준, 광범위한 탈세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도·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(12%) 도입과 금 수입관세(10%) 신설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.8%로 다소 감소함.
- 2014년에는 전자정부, 인터넷을 활용한 효율적 세금 수납 환경 구축, 토지임대세(15%) 도입, 통신세 인상(20%→25%)등 정부의 세수확대 노력을 지속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.9%로 유지함.

- 2015년에는 원유가하락에 따라 에너지보조금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리세나 정권의 대선공약 실천에 따른 공공부문 지출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.6%로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1.7%까지 둔화 전망

- 스리랑카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로, 2013년에는 연료, 전력,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9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스리랑카 중앙은행(CBSL)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.3%까지 하락함.
- 2015년에는 세계식품가격 및 원유가 하락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.7%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장기간 지속된 내전으로 열악한 인프라

- 오랜 내전에 따른 투자 부족으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해외투자 유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함.
- 낮은 도로 포장률, 철도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비용이 높으며, 항만·공항 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원자재 수급과 제품 수출이 원활하지 않음.
 - 2014년 세계은행의 물류운용지수(Logistic Performance Index)에서 스리랑카는 160개국 중 89위이며, 특히 물류 인프라의 경우 126위로 하위권을 기록함.
- 또한, 상수도 보급률(2012년 기준 39%)이 낮아 공업용수가 부족하며 낙후된 전력시설과 잦은 정전 등으로 기업들은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□ 협소한 내수시장 및 복잡한 해고절차 등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

- 스리랑카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으로 인도 등 주변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유치는 어려움.
- 복잡한 해고절차, 고급 기술인력 부재, 생산설비 노후화, 많은 공휴일로 노동생산성이 중국,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에 비해 낮고 임금은 서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아 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.

□ 미국, EU 등에 수출시장 편중 및 의류산업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

- 2000년 의류산업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%를 기록한 이래 2015년 4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의류산업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.
-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시장이 미국, EU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세계경기 의존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시장 및 산업의 다각화가 요구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청정해안 등을 보유하여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

- 스리랑카는 청정해안을 보유한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연중 휴양지로 이용될 수 있으며, 내륙지방에는 다양한 자연 생태공원과 고대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어 종합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음.
-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은 증가 추세*이며 스리랑카 관광개발청 (Tourism Development Authority: TDA)은 2016년까지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발표함.
- * 2011년 86만 명→ 2012년 101만 명→ 2013년 127만 명→2014년 152만 명
- 스리랑카 정부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열악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, 신규 호텔 건립, 항구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□ 지리적 이점으로 서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 가능

- 수도인 콜롬보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동서 해상 운송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서남아시아의 물류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.

- 이러한 점을 감안, 스리랑카 항만청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항만 인프라 확충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.

□ 주요 수출시장의 보호무역조치 해제에 따라 의류산업 수출 확대 가능

- 2005년 다자간섬유협정(Multi-Fibre Agreement) 만료, 2008년 중국의 수입제한조치 해제, 2010년 EU 일반특혜관세제도 폐지 등으로 의류산업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정책 지속

-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인도,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으며, 싱가포르, 베트남,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.
- 또한,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의 회원국으로 2006년 1월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(SAFTA)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.

□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등 적극적 정책 추진

- 스리랑카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, 100%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, 이익 배당의 자유 보장, 자유로운 주식 양도,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.
- 2014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(Doing Business)에서 조사 대상 189개국 중 건설허가(60위), 투자자보호(51위), 수출입통관(69위)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.
- 대 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 11억 달러, 2012년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2013년에는 14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임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 ^e	2015 ^f
경 상 수 지	-4,675	-4,009	-2,626	-2,790	-1,639
경 상 수 지 / GDP	-7.9	-6.75	-3.91	-3.8	-2.0
상 품 수 지	-7,643	-9,416	-7,608	-8,286	-7,951
수 출	10,559	9,774	10,394	11,131	11,548
수 입	18,242	19,190	18,002	19,417	19,499
외 환 보 유 액	6,248	6,378	6,611	7,316	6,554
총 외 채 잔 액	28,400	33,700	35,700	42,600	45,100
총 외 채 잔액 / GDP	47.99	62.55	58.90	57.10	56
D . S . R .	13.42	11.2	11.1	12.7	11.5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원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 다소 축소 전망

- 스리랑카는 내전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로 고무 등 1차 상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차, 섬유류를 수출하며, 원자재,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3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,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금 수입관세 신설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축소됨.
- 2014년에는 수출업자들에 대한 항구·공항 이용부담금 하향조정, 세금 감면 혜택 부여 등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재수입 확대에 의해 상품수지 적자는 82억 달러로 확대됨.
- 2015년에는 원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79억 달러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관광업 호조와 해외송금액 증가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 감소 전망

- 상품수지 적자 축소, 관광업 호조,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2011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여 2013년 동 비율은 4.1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관광시설 개선, 항구 확장 등을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3.8%를 기록함.

- 2015년에는 관광수입 확대, 물류서비스 개선에 따른 물류산업 수요 증가, 아웃소싱사업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고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%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환율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축소

- 2012년 외환보유액 규모는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*과 국채 발행으로 64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고 2013년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여 66억 달러를 기록함.
- * 스리랑카는 2009년 IMF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2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 지원을 받음.
- 2014년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국채 발행 및 해외송금액 증가 등으로 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확대됨
- 2015년에는 환율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은 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채규모가 과중하나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채무비중이 높은 편

-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1년 49.7%에서 2015년에는 56%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한 것으로 분석됨.
- 다만, 2012년까지 IMF 대기성차관을 지원받는 등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49%로 높은 편임.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: D.S.R.)은 외채비용증가 및 상업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증가 등으로 2013년 11.1%, 2014년에도 12.7%를 기록하였고 2015년 11.5%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 · 사회 동향

1. 정치 동향

□ 시리세나 정권의 정치개혁 실시 등으로 안정적 정국 운영 토대 마련

- 2015년 1월 실시된 대선에서 스리랑카자유당(SLFP)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가 통일국민당(UNP)을 포함한 범야권의 지지를 받아 후보로 출마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치개혁조치를 단행함.
 - 전 정권의 비리척결 및 대통령 3선 금지 등의 정치개혁을 실행하고 타밀족 등 소수민족 앞 권력 분배 등을 추진하고자 함.
- 또한, 2015년 8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UNP가 과반을 넘지 못한 106석을 차지함에 따라 95석을 차지한 통합국민자유연맹(UPFA) 내 최대당인 SLFP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.
 - SLFP(대표: 시리세나 대통령)과 UNP(대표: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)는 동년 8월 25일 연합정부를 구성기로 합의함.

2. 사회 동향

□ 싱할리족-타밀족 간 갈등 해소 노력 지속

- 타밀 반군(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: LTTE)과의 휴전협정 폐기 (2008. 1월) 이후 정부의 타밀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성공하여 26년 동안 지속된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고 2011년 8월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됨.
- 내전 당시 타밀족 민간인 학살 의혹(4~10만 명 사망 추정)에 대한 정부 강경대응 등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 갈등상황이 잠재했으나 시리세나 정권 이후 북부 타밀족에게 토지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등 평화정책을 영위하고 있음.

□ 높은 빈곤율 및 지니계수 등 사회빈곤문제 심각

- 빈곤율이 2009-2010년 8.9%에서 2012-2013년 6.7%로 하락하였으나 2012-2013년 지니계수는 0.47을 기록하는 등 사회불평등이 심각

3. 국제관계

□ 시리세나 정권 집권 후 미국, EU 등 서방국가와 관계 개선

- 라자팍세 정권은 타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살문제 해결을 거부하여 스리랑카와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관계를 유지했으나, 시리세나 정권 집권 후 동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등 우호관계로 전환함.
- 2012년 이후 UN인권이사회에 속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주도 하에 스리랑카 군의 전쟁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고, 2015년 미국 대표단이 방문하여 전쟁범죄 및 잔학행위 조사, 중립조사위원회 설치 등 스리랑카 정부의 관련 조치를 확인함.

□ 타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와의 관계회복 및 원조 지원 등 중국과의 친밀관계유지

- 타밀족 학살 등 전 정권의 적대적인 관계와 달리, 현 정권은 타밀족 우호 정책을 실시하여 친(親) 타밀정권인 인도 모디정권과 우호관계로 전환함.
- 한편, 중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조 및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, 2013년에는 중국-스리랑카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6등급 (2015. 6)	6등급 (2014. 6)
S&P	B+ (2010. 9)	B (2008. 12)
Moody's	B1 (2013. 7)	B1 (2010. 9)
Fitch	BB- (2015. 4)	BB- (2014. 4)

- 2015년 6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견고한 성장세, 양호한 외채관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공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로 종전의 6등급을 유지함.
- S&P와 Moody's는 2010년, Fitch는 2011년에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평가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- 2013년 7월 Moody's는 GDP 대비 높은 재정수지 적자 지속,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스리랑카에 대한 전망을 "긍정적"에서 "안정적"으로 하향 조정함.

2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태도는 양호

- 2013년 9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19.4억 달러(단기 2.1억 달러, 중장기 17.3억 달러) 중 연체액은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.

□ 주요 ECA의 지원 태도

- 미국 EXIM :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
- 영국 ECGD : 중단기 인수가능
- 독일 Hermes : 단기 인수가능하나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4> 한·스리랑카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2	2013	2014	주요 품목
수 출	320	299	314	편직물, 자동차, 철강관
수 입	71	84	93	고무제품, 천연섬유사, 기타직물
교역규모	391	383	407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국교 수립: 1977년 11월 14일 (북한과는 1970년 6월 25일)
- 주요 협정: 항공협정(1978년), 문화협력협정(1978년), 투자보장협정(1980년), 무역협정(1984년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86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94년)
-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 - 스리랑카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.2억 달러로 최고규모를 달성한 후 2012년 3.9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4년 4억 달러를 시현하는 등 점진적 증가세를 보임.
 - 특히, 2014년에는 한국의 대 스리랑카 주요 수출품목 중 철강관 수출이 전년대비 7.9%, 주요 수입품목 중 고무제품 수입이 6.9% 증가함.
 - 우리나라의 대 스리랑카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6월 기준 165건, 1억 7,469만 달러를 기록(투자누계 기준)함.
 -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억 6,236만 달러로 전체투자의 91.4%를 차지하며, 제조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이 전체 제조업의 62.7%임.

V. 종합 의견

- 2014년에는 민간소비 회복과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7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, 2015년에는 민간소비 증가, 고정투자 확대에 따라 6.5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2014년에는 효율적 세금수납 환경 조성, 토지임대세 도입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5.9%를 기록했으나, 2015년에는 올해 집권한 시리세나 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해 공공부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 비율은 6.6%로 악화되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대규모 경상이전수지흑자 및 관광업 호조로 인한 서비스수지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세가 지속됨.
-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2015. 8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안정적 정치기반이 마련됨. 지난 라자팍세 정권의 비리척결 등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타밀족과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평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.
- 스리랑카는 외채의존도가 높은 편이나,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
조사역 장은진 (☎02-6255-5716)

E-mail: eunjin@koreaexim.go.kr